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잠언 8:22-31 | 제2독서 | 로마서 5:1-5 | 복음 | 요한 16:12-15

◎말씀 < “사랑이 있는 곳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코 셋이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하느님 신비중의 신비라고 합니다.

어느 한 교부(니콜라스 카바실라스)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 위격의 고유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인류와 화해하셨고, 아드님은 이 화해를 이룩하셨으며, 성령은 하느님의 친구들이 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선물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아드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몸값이 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안에 계신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아드님은 우리를 거듭 창조하셨으며,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한 지식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녹아내야 하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삼위일체 하느님이 온전히 신앙의 문체 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 사랑으로써 통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랑안에 머무르십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안에 나오는 하느님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가득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을 세상에 드러내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학문이고, 우리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을 통해 온 세상에 너무나 밝게 드러나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6월 18일(화)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4,895.00 \$ 934.00
6월 19일(수)	연중 제11주간 수요일	오전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300.00 \$ 245.00
6월 20일(목)	연중 제11주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270.00 \$ 143.00
6월 21일(금)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수도자 기념일	오후 7시 30분	기타수입 원캠페인	\$ 523.00 \$ 1,624.00
6월 22일(토)	연중 제11주간 토요일	오후 7시 30분	ACA 합 계	\$ 100.00 \$ 9,034.00
6월 23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4명 성인: 193명
교무금 봉헌자	이대성. 이미자(7-12월) 박문교(7-10월) 이상인(6-7월) 김옥륜(5-7월) 금외주. 서희석. 김창영. 최응철. 박을생. 김중순(5-6월) 정태환(2-6월) 김형진(4-5월) 권오돈(3-5월) 우순이. 최이주. 전정옥. 김진태(5월) 박원상 이재덕. 구준모. 김상돈. 백정심. 김양순. 박용호. 황호민. 장대석. 김길록. 김은영. 김규철. 김운태. 허형. 지복원. 전기례. 김규대. 김영숙(6월)			

◎신앙생활(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하느님의 얼굴

84세의 캐나다 신부님께서 잠시 저희 집에 머무셨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겠느냐 물으시기에, 윤리신학도 교리도 아니고, 왜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셨는지, 또 어떻게 돈과 여자와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며 그 어려운 성소를 끝까지 지킬 수 있으셨는지, 그 놀라운 사제의 삶을 종신토록 가능하게 한 하느님 사랑의 체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솔하게 고백하시라고 했습니다.

제목도 잊어버린 미국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90세가 가까운 노인 수사님께서 임종하시는 자리를 젊은 예비 수사님이 지키는데, 어느 날 예비 수사가 노인 수사님께 후회되는 일이 없으시냐고 여쭙니다. 사랑하던 소녀와 이별하고 수도원에 입회했는데 가끔 그 소녀를 생각하였으며, 그 여인을 사랑하고 키스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더라면 그 사랑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 분심한 적은 있었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하신다는 뜻이냐고 다시 여쭙자, 노인 수사님은 “내가 지금 죽으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육안으로 만나 뵙게 될 것인데, 하느님을 뵙는 순간의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체험한 기쁨과 감격의 천 배 만 배 일거야. 그러니 후회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떤 죽음이어야 하나? 어떤 삶이어야 하나?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수형생의 자세로 하느님을 곁에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하느님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의 사랑과 감동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방바닥의 장판을 뜯고, 장판 밑에 깔린 녹슨 온수 파이프를 교체하던 때

였습니다. 쇠도 녹이 슬어서 물이 새고 방 바닥이 썩는데, 70년 가까운 내 뱃속의 내장은 어떻게 썩지도 않고, 오늘도 먹은 음식을 다 소화시키나...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하느님께서 주시고 키우시고 살리시는 생명이 그지없이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추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지금 제곁에 계십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
원헤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박판기.세실리아의 영혼	국부자.마리아	연	이정자.발비나의 영혼	임그라시아
연	차옥금.크리스티나의 영혼	박수옥.글라라	연	이정자.발비나의 영혼	김정애.헬레나
연	이태영.마리아요셉신부님의 영혼	박문교.글라라	생	이영숙.데레사 감사미사	이종만.모세
연	이정자.발비나의 영혼	임정남.실비아			

간장종지
 ◎흄씨의꿈◎
 어느 날 드디어 그 흄씨는 공중을 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흄씨가 다가오면 손을 휘 저었다. 찌그러진 광통들 사이, 지친 흄씨는 이윽고 멈추었다. 그때다. 한 목소리가 흄씨의 어깨를 두 드렸다.
 “꽃으로 피거라” 성령의 목소리다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	---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	--	--

●공동체 소식(본당의 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리노공소 미사
일시: 16일(일)오후3시.성당에서 출발
참여단체:사회복지부.공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2. 모임안내
꼬미시움: 16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울뜨레아: 19일(수)오후7시30분.엘리사벳방
사 목 회: 23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연 령 회: 23일(일)오후1시.마태오방
3. 본당방문을 환영합니다.
일시; 16일(일)교중미사중.
김상진.아우스딩신부님(안동교구)
4. 교구 2차헌금(선교사업후원)
일시: 16일(일) 모든미사
목적: Missionary Cooperative Appeal (세계선교)
소개: Comboni전교수녀회 Iiga 수녀님
5.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28일(금)오후7시30분.성당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6.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영명축일; 29일(토) 축하식: 30일(일)교중미사중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7. 세례대상자 피정
일시; 29일(토)오전9시30분.성당 및 친교실
대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8. 세례식(전반기) 안내
일시; 7월7일(일)교중미사중
주님자녀로 새로이 태어나심을 축하드려요.
대부모님과 신자들의 기도바래요(게시판 참조)
9. 정혜문학마당 결산보고(행사부)
수입: \$2,320 지출: \$1,796.71 수익금: 523.29
수익금은 사제관비품비로 봉헌했음.감사해요
10. 새 사제관 이사
일시; 6월16일(일)오후1시.신자들의 도움바래요.
11. 정혜도서관 오픈일자 변경안내(6월)
일시: 16일(일).30일(일)11시미사후

12. 65번가 St.Mary's 묘소 현지답사 안내
일시: 22일(토)오전10시30분.성당에서 출발
23일(일)오후 1시30분.성당에서 출발
한국Section 조성에 참여해주신 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문의: 고원석.바로로
13.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일시: 7월5일(금)오후4시30분-7일(일)오후2시.
장소: 꽃동네(37885 Wood chuck Rd.Temecula)
참가비: \$160(전액지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해주세요
14. 제25차 북가주 성령대회 안내
일시: 8월17일(토)오전8시30분-오후8시30분.
장소: 산호세성당 참가비: \$25 문의: 김은영폴리나
강사: 민범식.안토니오신부님(서울대교구)
15. 교구 원캠페인 모금을 마감합니다(6월말까지)
부족금액모금위해 신자들의 협조바래요(\$4,800
서메리;\$1,100 사목회;\$324(지난주)감사합니다
16. 연도안내(이정자.발비나)
일시: 20일(목)오후8시.성당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주일/한글학교 소식>

북가주청소년여름캠프 기금마련 세차안내
일시: 30일(일)오전9시-오후1시.많은 참여바래요
북가주청소년여름캠프(HKMCC) 안내
일시: 7월30일(화)-8월3일(토)대상: 8학년-12학년
장소: Heavenly Hills Christian Camp
(25611 Lyons Dam Rd Twain Harte CA95383)
등록: 인터넷에서 신청 문의: 김형일.주일학교장
<http://nckcdirectors.wixsite.com/summercamp2019>

- 식사봉사(이번주); 성가대 보조: 전비아
식사봉사(다음주); 안나회 보조: 이상일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 1,2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화답송



주 - 님 저 희 주 님 온 땅 에 당 신 이 름 이 얼 마 나 크 시 읍 니 까

전례봉사	삼위일체대축일(6월16일)	성체성혈대축일(6월23일)	연중 제13주일(6월30일)	연중 제13주일(7월7일)
해 설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김은영.폴리나	최금주.요안나
제1독서	윤여훈.로마노	김선식.플라비노	임현재.요한	조성용.레오
제2독서	남소영.세실리아	정미정.루시아	임규민.엘리사벳	장선영.스콜라스티카
복 사	김규철.윤여훈	허호영.장현철	김규철.장현철	최진호.이상은
봉헌/기도/청소	1-2구역	1-2구역	1-2구역	3-4구역
헌금위원	임상일.안혜숙.박병수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정의주.박수옥	이영숙.임혜숙.이경희